

신안군, 환경오염 예방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 시동

제16회 자원순환의 날 연계 운영 종이팩·폐전지 제출시 물품 교환 매월 첫째주 금요일 교환의 날 자원 절약 중요성 인식 '방점'

신안군이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프로젝트 시행에 나섰다. 지난 9월 6일 제16회 자원순환의 날과 연계해 지난 6일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는 종이팩과 폐전지를 제로 웨이스트 물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원재료 100% 수입 의존인 종이팩과 수은 등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전지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11일 신안군에 따르면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는 '종이팩·폐전지 교환의 날'이 운영되며 군민들은 종이팩과 폐전지를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제로 웨이스트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제로 웨이스트 물품은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 방지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러한 신안군의 노력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 사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생활 주변 소소한 실천을 통해 군민들이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원 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순환경제도시, 플라스틱 제로 2050' 추진 선포식, '플라스틱 제로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속가능한 폐기물 정책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신안=홍일갑 기자**



신안군민이 가정에서 모은 종이팩을 제출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6일부터 제로웨이스트 실천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신안군 제공**

영암군, 무료 요충감염 검사 실시 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 대상

영암군이 지난 9월부터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 310명의 무료 요충감염 검사에 돌입했다.

11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핀테이프를 항문에 붙였다 떼어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수거된 검체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에 분석 의뢰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검사에 앞서 사전 수요조사로 선정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13개소 요충검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검사 테이프를 배부했다.

제4급 법정 감염병인 요충증은 요충의 유충에 감염돼 나타나는 질환으로 영유아 사이에서 유행하며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들에게 발병하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항문 주위를 긁는 손, 옷과 침구류 등에 의해 감염될 수 있는 요충증의 주요 증상은 항문 주위 가려움증, 피부염 등이고, 야뇨증, 복통, 설사가 유발되기도 한다.

영암군은 이번 검사로 발견된 양성자에게 보건교육과 무료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암=한교진 기자**

무안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공정 상거래 문화 조성

무안군은 공정한 상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읍면별 순회검사와 소재 장소 검사(저울이 있는 장소)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저울 및 판지저울, 전기식 저울 등이다.

2023-2024년에 별도 검정받은 저울이나 판매용으로 보관 중인 저울, 체중계·가정용·교육용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검사는 정해진 기간 읍·면사무소와 지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저울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소재 장소 정기검사가 진행된다.

지정기일 미수검자는 타 읍·면 검사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고 저울 소재장소로 방문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9월 13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대상은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저울이 이동하면 파손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이며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합격 시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며 불합격 시 '사용중지 필증'을 부착해 사용을 중지하고 수리 후 재검사받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무안=김행언 기자**

무안군,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현재 운영 중인 업소도 재심사

무안군은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모범음식점 신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범음식점은 위생과 서비스가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기준'에 따른 현지 평가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현재 지정·운영 중인 모범업소 47개소도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모집 대상은 관내에서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일반음식점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무안군보건소 위생 1·2팀(061-450-5018)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무안군지부(061-452-8809)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무안=김행언 기자**

10월까지 고구마 무병묘 분양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영암군농업기술센터가 2024년 고구마 무병묘 생산·보급을 위해 10월 말일까지 플러그묘(포트묘) 사전 신청을 받는다.

고구마 무병묘는 조직배양기술로 수량과 품질 저하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제거한 배양묘이다.

11일 영암군에 따르면 고구마 바이러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진딧물, 담배가루이 등 전염원 방제·차단에도 유의해야 하지만, 안전한 바이러스 무병묘 사용이 필수다.

영암군의 중점 분양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산 '호풍미' '진울미' 등이다. 진울미는 2016년 개발된 밤고구마 품종으로 수량성·저장성이 뛰어나고 재배 안정성이 우수하며 조기 수확이 가능하다. 호풍미는 2022년 개발된 새로운 호박고구마 품종으로 당도가 높고 고구마 말랭이 등 가공성이 우수하며, 덩굴쥔감병 등 병해충에 강한 다수확 품종이다.

무병 플러그묘 단가는 주당 100원으로 최소 신청기준은 재배면적 1ha 이상이고 공급 예정 시기는 2025년 1~3월이다.

농가에서는 반드시 품종 특성을 참고해 수요에 맞는 플러그묘를 신청해야 한다. **영암=한교진 기자**



무안군 현경면 주민들이 공동집하장에 방치되고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현경면, 추석 명절 맞이 마을 대청소

무안군 현경면(면장 김나연)이 지난 7일부터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마을 대청소를 진행했다.

11일 무안군에 따르면 대청소는 각 마을 이장님과 주민들이 참여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을별로 진행했으며 도로 주변 풀베기 작업과 마을 쓰레기 공동집하장에 방치되고 버려진 폐기물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나연 현경면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이장님들과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깨끗한 현경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해남군, 추석 연휴 주요관광지 정상 운영

우수영 케이블카 시간 연장 등

해남군은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주요 관광지를 쉬는 날 없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다소 긴 연휴를 맞게 된 이번 추석 명절 기간 관광지를 찾는 인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관광지를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땅끝관광지의 땅끝전망대 및 모노레일, 땅끝조각공원,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연휴 기간에도 정상 운영되며 땅끝오토캠핑장은 추석 전날과 당일인 16~17일에만 휴장한다.

바다로 41m가 뻗어나간 땅끝스카이워크와 세계의 땅끝공원 등 새롭게 조성

된 땅끝의 관광명소도 두루 둘러볼 수 있다.

우수영관광지도 연휴기간 정상 운영되며 우수영 명랑대첩해전사기념관 앞 광장에서 투호던지기, 공기놀이 등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명랑대첩의 승전지, 울돌묵 바다를 가로지르는 명랑해상케이블카는 15~17일 운행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진도대교와 울돌묵 스카이워크, 우수영관광지가 어우러진 화려한 야간 경관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해남읍권의 고산운선도유적지와 두륜미로파크, 양한목 기념관, 두륜산 케이블카와 민간 정원인 산이정원과 포레스트

수목원 등도 정상 운영된다.

해남공룡박물관은 연휴기간 쉬는 날 없이 정상운영하는 것은 물론 16~18일에는 무료 개방한다. 매일 오후에는 박물관 내 거대공룡실에서 버스킹 공연과 버블쇼, 풍선쇼, 마술쇼 등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이 열리며 박물관 잔디광장 등에서는 전통놀이와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연휴 기간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쉬는 날 없이 주요 관광지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추석 연휴 빈틈없는 종합대책의 추진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해남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